

2. 생육초기에 비해 생육후기에 광합성의 능력은 현저히 감퇴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그 정도는 전광량의 15~20%하에서 재배된 인삼잎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2년근에서는 생육후기에 호흡량이 감소되는 경향이었으나 4년근에서는 생육후기에 대체로 호흡량이 증가되었고 엽록소의 증감도 호흡량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 9. 고려인삼의 種子發芽에 關한 研究

(I) 溫度가 開匣種子의 胚生長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농과대학농학과) 曹 在星, 姜 熙慶\*

1. 종숙종자의 직파시 전체배율은 59.12%로서 관행개갑처리구의 평균배율 64.70%에 비해 약간 낮으나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2. 개갑종자를 0°, 5° 및 10℃에 치상하여 배율을 각각 조사하였던바 10℃에서의 배신장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5℃였으며 0℃에서의 배신장율이 가장 낮았다.
3. 개갑종자의 온도처리에 따르는 발근율은 10℃처리구에서 현저히 높고 빨랐으며 다음이 5℃구였고 0℃에 치상한 종자에서는 130일까지도 전혀 발근되지 않았다.

## 10. 인삼의 出芽 및 生育特性에 關한 生育調節物質의 영향

(한국인삼연초연구소) 정 찬문\*, 안 상득  
권 우생

生長調節物質인 GA, Kinetin 및 2, 4-D를 濃度別로 處理하여 日

數經過에 따른 人蔘의 出芽 및 生育特性을 조사하였던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出芽는 處理物質 中 Gibberellin의 效果가 가장 좋으며 濃度가 증가할수록 早期出芽되어 出芽期間이 단축되었고 出芽率도 높게 나타났다.
2. GA 처리는 地上部 生育을 크게 伸長시켰으며 특히 莖長, 葉柄長의 伸長을 촉진시켰다.
3. GA 50, 100ppm 처리구는 근중을 크게 증가시켰다.
4. GA 濃度가 높을수록 조기에 地上部生育이 完了되었다.
5. 腦包제거구는 無除去區에 比하여 출아가 다소 빠른 傾向이나 生育은 대체로 비슷하였다.

## 11. 人蔘種子의 胚生成 時期에 關한 細胞學的 研究

( 한국인삼연초연구소, 고려대농대 ) 安 相得\*, 權 宇生  
鄭 燦文, 최 광태  
손 응룡

人蔘種子의 embryo 生成時期를 究明하고 종자의 채종적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人爲授粉後 20, 30, 40, 50, 60 일후 胚乳內的 胚生成狀態를 觀察하였으며 또한 종자의 개갑율을 調査하였던바 그 結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열매, 종자 및 배유의 크기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약간씩 伸長하였으나 큰 差異는 인정되지 않았다.
2. 胚乳內 embryo는 授粉 後 20日頃부터 生成되기 시작하였으나 전혀 개갑은 되지 않았다.
3. 종자의 개갑은 수분후 40일이 경과한 종자가 70.3%로 가장